

# IMF Survey

ASIA 21 컨퍼런스

## 독일의 은행가, 금융위기가 금융부문의 획기적인 변화를 유발했다고 설명

IMF Survey online  
2010년 7월 14일



도이치 은행의 아커만 회장: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금융 시스템은 규제가 강화되고, 국제성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감소하는 반면에, 희망적으로 볼 때,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 (IMF 사진)

- 금융위기가 경제, 금융 파워의 아시아로의 이동을 가속화
- 금융센터 및 은행 규모의 증가가 신흥 시장의 성장을 반영
-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고

고위 은행가인 요세프 아커만에 의하면,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서양의 입지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경제 및 지정학적 파워가 동양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속화되었다.

한국정부와 IMF가 한국 대전시에서 개최한 주요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 도이치 은행 총재는 고위 정부 관리, 중앙은행 총재, 재계 경영자들로 구성된 청중들에게 금융 위기 이후의 사건들로 인해 아시아의 영향력과 금융 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위기는 서양의 상대적인 경제력 감소를 촉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시장국들, 특히 아시아의 신흥시장국들에 비해 경제 회복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 서양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증가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 신흥시장국의 역할 증대

아커만 총재는 아시아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문 내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신흥시장에 위치한 금융센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전에도, 서울, 상파울루,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곳은 현재의 금융센터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는 단지 시장점유율을 다소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입니다"라고 아커만 총재는 언급하면서, 세계 최대의 은행들(증권시장 시가총액에 기준하여)은 현재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 10 대 은행(시장가치 기준) 중 4 개가 중국에 있는 데, 2004 년에는 전무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고, 이러한 변화를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2007 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나중에 경제위기로 악화되어 전세계를 집어삼켰다.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상품 및 업무에 대한 엄격한 규칙 적용, 자본 요건 강화, 시장 규제 증가가 시행되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규제가 강화되고, 국제성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감소하는 반면에, 희망적으로 볼 때, 은행들이 고객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향상되고 개방성과 유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아크만 회장은 예측했다.

### 규제를 규제

그러나 이 은행가는 이러한 변화들이 경제체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이에 불평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저는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금융 시스템이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적당한 균형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노력하는 것을 지지합니다”라고 그는 경고했다.

아커만 총재는 아시아의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된 것은 21 세기 초에 이 지역에 금융 위기가 발생한 후에 재정 규율 확립, 금융부문 규제, 감독 강화와 같은 개혁을 실시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역사 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의 파장은 아직도 감지되고 있으나, 아시아의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새로운 미래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전망했다.